**찬나경**

(Channa suttaṃ-Venerable Channa- 찬나, 상윳따니까야 S21.2.4.8, 전재성님역)

한때 많은 장로 수행승들이 바나라씨에 있는 이씨빠따나의 미가다야에 있었다.

그때 존자 찬나는 저녁 무렵 홀로 명상하다가 일어나 열쇠를 들고 승원에서 승원으로 찾아다니며 그들 수행승들에게 이와 같이 말했다.

[찬나]

"장로이신 존자께서는 제게 가르침을 베풀어주십시오. 장로이신 존자께서는 제게 가르침을 베풀어 주십시오. 장로이신 존자께서는 제가 진리를 볼 수 있도록 설법을 해 주십시오."

이와 같이 말하자 장로 수행승들은 존자 찬나에게 이와 같이 말했다.

[장로들]

"벗이여, 찬나여,

물질도 무상하고 감수도 무상하고 지각도 무상하고 형성도 무상하고 의식도 무상하다. 물질도 실체가 없고 감수도 실체가 없고 지각도 실체가 없고 형성도 실체가 없고 의식도 실체가 없다. 모든 형성된 것은 무상하고 모든 사물은 무상하다."

그러자 존자 찬나에게 이와 같은 생각이 떠올랐다.

[찬나]

"나도 역시 이처럼 '물질도 무상하고 감수도 무상하고 지각도 무상하고 형성도 무상하고 의식도 무상하다. 물질도 실체가 없고 감수도 실체가 없고 지각도 실체가 없고 형성도 실체가 없고 의식도 실체가 없다. 모든 형성된 것은 무상하고 모든 사물은 무상하다' 고 생각한다.

그렇지만 모든 형성이 멈추고 모든 집착이 버려지고 갈애가 소멸되고 물들지 않아 열반에 드는 것에 마음을 내지 못해서 청정하지 못하고 안주하지 못하고 두려움에서 벗어나지 못하면 집착심이 생겨나 '그렇다면 나의 자아는 누구인가?' 라고 나의 마음이 퇴전하면 그와 같이 진리를 보지 못한다. 내가 진리를 볼 수 있도록 누가 내게 가르침을 베풀 것인가?"

이 때에 또한 존자 찬나에게 이와 같은 생각이 떠올랐다.

[찬나]

 "존자 아난다가 고씨따 승원에 계신다. 스승께서 칭찬하고 청정한 삶을 이끌어 가는 현자로서 존경받는 분, 존자 아난다는 내가 진리를 볼 수 있도록 내게 가르침을 베풀 수 있을 것이다. 나는 존자 아난다를 그만큼 신뢰하고 있으니 존자 아난다가 있는 곳으로 가보면 어떨까?"

그래서 존자 찬나는 와좌구를 챙겨 넣고 바루와 가사를 들고 꼬쌈비의 고씨따 승원으로 존자 아난다가 있는 곳을 찾았다. 가까이 다가가서 존자 아난다와 함께 인사를 하고 한쪽으로 물러앉았다. 한쪽으로 물러선 존자 찬나는 존자 아난다에게 이와 같이 말했다.

[찬나]

 "벗이여, 아난다여,

저는 한때에 바나라씨의 이씨빠따나의 미가다야에 있었습니다. 벗이여, 저는 저녁무렵 홀로 명상하다가 일어나 열쇠를 들고 승원에서 승원으로 찾아다니며 그들 수행승들에게 이와 같이 말했습니다.

'장로이신 존자께서는 제게 훈계를 베풀어 주십시오. 장로이신 존자께서는 제게 교시를 베풀어 주십시오. 장로이신 존자께서는 제가 진리를 볼 수 있도록 설법을 해 주십시오' 라고.

이와 같이 말하자 장로 수행승들은 제게 이와 같이 말했습니다.

'벗이여, 찬나여,

물질도 무상하고 감수도 무상하고 지각도 무상하고 형성도 무상하고 의식도 무상하다. 물질도 실체가 없고 감수도 실체가 없고 지각도 실체가 없고 형성도 실체가 없고 의식도 실체가 없다. 모든 형성된 것은 무상하고 모든 사물은 무상하다' 라고.

벗이여, 그러자 제게 이와 같은 생각이 떠올랐습니다.

'나도 역시 이처럼 '물질도 무상하고 감수도 무상하고 지각도 무상하고 형성도 무상하고 의식도 무상하다. 물질도 실체가 없고 감수도 실체가 없고 지각도 실체가 없고 형성도 실체가 없고 의식도 실체가 없다. 모든 형성된 것은 무상하고 모든 사물은 무상하다고 생각한다.

그렇지만 모든 형성이 멈추고 모든 집착이 버려지고 갈애가 소멸되고 물들지 않아 열반에 드는 것에 마음을 내지 못해서 청정하지 못하고 안주하지 못하고 두려움에서 벗어나지 못하면 집착심이 생겨나 '그렇다면 나의 자아는 누구인가?' 라고 나의 마음이 퇴전하면 그와 같이 진리를 보지 못한다. 내가 진리를 볼 수 있도록 누가 내게 가르침을 베풀 것인가?' 라고.

벗이여, 이 때에 제게 이와 같은 생각이 떠올랐습니다.

'존자 아난다가 고씨따 승원에 계신다. 스승께서 칭찬하고 청정한 삶을 이끌어 가는 현자로서 존경받는 분, 존자 아난다는 내가 진리를 볼 수 있도록 내게 가르침을 베풀 수 있을 것이다. 나는 존자 아난다를 그만큼 신뢰하고 있으니 존자 아난다가 있는 곳으로 가보면 어떨까?' 라고.

존자 아난다여,

제게 훈계를 베풀어 주십시오. 존자 아난다여, 제게 교시를 베풀어 주십시오. 존자 아난다여, 제가 진리를 볼 수 있도록 설법을 해 주십시오."

[아난다]

"나는 실로 존자 찬나가 마음에 듭니다. 존자 찬나는 참으로 마음을 열어보이고 장애를 부수었습니다. 벗이여, 찬나여, 귀를 기울이십시오. 그대는 진리를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존자 찬나에게는 '나는 진리를 알 수 있다' 는 커다란 기쁨과 환희가 생겼다.

[아난다]

 "벗이여, 찬나여, 세존의 금구(金口)에서 수행승 깟짜야나를 가르친 그 금구에서 들었습니다.

'깟짜야나여,

이 세상 사람들은 대부분 존재나 비존재의 두 가지에 의존한다. 깟짜야나여, 참으로 올바른 지혜로써 있는 그대로 세상의 발생을 관찰하면 세상에 비존재라는 것은 사라진다. 깟짜야나여, 참으로 올바른 지혜로써 있는 그대로 세상의 소멸을 관찰하면 세상에 존재라는 것은 사라진다. 깟짜야나여, 이 세상사람들은 대부분 접근, 집착, 주착을 통해 얽매여 있다. 깟짜야나여, 이러한 접근하고 집착하고 마음으로 욕구하여 유입되고 잠재되는 것에 다다르지 않고 붙잡지 않고 주착하지 않는 사람은 '그것은 나의 자아가 아니다. 괴로움이 일어나면 일어난다. 괴로움이 사라지면 사라진다' 고 의심하지 않고 혼란되지 않는다. 여기서 그에게 다른 사람에 의존하지 않고 지식이 생겨난다. 깟짜야나여, 이와 같이 올바른 지혜가 생겨난다.

깟짜야나여,

'모든 것은 존재한다' 고 하는 것은 하나의 극단이다. '모든 것은 존재하지 않는다' 고 하는 것도 또 하나의 극단이다. 깟짜야나여, 여래는 그러한 양극단을 떠나서 중도로 가르침을 설한다. 무명을 조건으로 형성이 생겨나고, 형성을 조건으로 의식이 생겨나며, 의식을 조건으로 명색이 생겨나고, 명색을 조건으로 여섯 감역이 생겨나며, 여섯 감역을 조건으로 접촉이 생겨나고, 접촉을 조건으로 감수가 생겨나며, 감수를 조건으로 갈애가 생겨나고, 갈애를 조건으로 집착이 생겨나며, 집착을 조건으로 존재가 생겨나고, 존재를 조건으로 태어남이 생겨나며, 태어남을 조건으로 늙고 죽음, 우울, 슬픔, 고통, 불쾌, 절망이 생겨난다. 이와 같이 해서 모든 괴로움의 다발들이 생겨난다.

그러나 무명이 남김없이 사라져 소멸하면 형성이 소멸하고, 형성이 소멸하면 의식이 소멸하며, 의식이 소멸하면 명색이 소멸하고, 명색이 소멸하면 여섯 감역이 소멸하며, 여섯 감역이 소멸하면 접촉이 소멸하고, 접촉이 소멸하면 감수가 소멸하며, 감수가 소멸하면 갈애가 소멸하고, 갈애가 소멸하면 집착이 소멸하며, 집착이 소멸하면 존재가 소멸하고, 존재가 소멸하면 태어남이 소멸하며, 태어남이 소멸하면 늙고 죽음, 우울, 슬픔, 고통, 불쾌, 정말이 소멸한다. 이와 같이 해서 모든 괴로움의 다발들이 소멸한다' 라고."

[찬나]

"벗이여, 아난다여,

이처럼 청정한 삶을 영위하는 존자들께서는 사람들을 불쌍히 여기고 이익을 베풀고 훈계하고 교도하는 자로서 그와 같이 생각하십니다. 저는 존자 아난다의 설법을 듣고 진리를 현관했습니다."

註.

- 찬나 :

붓다고싸에 의하면 '그는 여래와 한날 한시에 태어나 위대한 유성출가(逾城出家)의 날에 함께 했고 나중에 스승 앞에 출가하여 '나의 붓다, 나의 법' 이라고 하면서 무체(無體)하고 악의적이었고, 청정한 수행승들에게 욕지거리를 해서 화나게 만든 수행승이다' 라고 설명한다. 이 경전은 부처님께서 완전한 열반에 드신 후의 이야기를 기록하고 있다. 부처님께서 열반에 드실 때에 수행승들이 찬나와 사귀지 말 것을 지시했다. 그래서 그는 베나레스로 가다가 불치의 병에 걸려서 자결했다.

- 장로들이 찬나에게 시설한 가르침에 대한 설명:

'모든 수행승들이 그를 가르치면서 왜 무상의 특징과 무아의 특징만을 말하고 괴로움의 특징은 말하지 않았다. 왜? 왜냐하면 괴로움의 특징이 시설되면 이와 같이 이 수행승은 물질도 괴롭고 의식도 괴롭고 도(道)도 괴롭고 과위(果位)도 괴롭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이다' 라고 붓다고싸는 설명한다.

- 세상 사람들 : loka. 로까는 세상(世上) 또는 세상 사람을 뜻하며, 불교의 가르침을 따르는 성스러운 무리(聖衆 ariyapuggala)를 제외한 일반사람을 지칭한다.

- 존재와 비존재 :

atthita(有)는 존재의 영원성을 뜻한다. 여기서 존재에 대한 견해란 존재의 영원성에 바탕을 둔 철학적 이론, 즉 영원주의로 알려진 상견(常見 sassataditthi)을 뜻한다. 리즈 데이비스 여사는 이에 대해 '여기서 존재라고 하는 것은 절대적으로 소멸될 수 없는 파르메니데스적인 의미에서 이해된다' 고 말하고 있다. natthita(無)는 존재의 불연속적인 허무성을 뜻한다. 비존재에 대한 견해란 우리에게 내세가 없다는 식의 허무주의, 즉 단견(斷見 ucchedaditthi)을 말한다.

- 비존재에 대한 생성의 관찰과 존재에 대한 소멸의 관찰 :

올바른 관찰의 지혜(觀智 vipassanappanna)와 올바른 길의 지혜(道智 maggappanna)로서 모든 형성되어진 존재들이 업(業), 무명(無明), 갈애(渴愛) 때문에 끊임없이 생겨나는 사실을 통찰한다면 현세의 존재에게 더 이상 미래가 없다는 허무주의적 단멸론(斷滅論)은 사라지며, 마찬가지로 이러한 지혜로 모든 형성되어진 존재들이 끊임없이 무상하게 소멸해가는 것을 관찰한다면 모든 존재가 영원하다는 영원주의적 상주론(常住論)은 사라진다.

- 접근하고 집착하고 마음으로 욕구하여 유입되고 잠재되는 것 :

upaya는 '접근, 시도' 등의 뜻을 지녔는데, 붓다고싸에 의하면 두가지의 upaya 즉, tanh'upaya와 ditth'upaya가 있다. 다시 말해 갈애에의 접근과 사견(邪見)에의 접근이란 두 가지의 접근을 말한다. upadana는 '붙잡은, 집착' 을 뜻하는데, 주석서에 따르면 이것도 마찬가지로 갈애에의 집착, 사견에의 집착을 뜻한다. abhinivesa는 '빠져든 상태, 새겨진 상태, 주착(住著)' 을 뜻하는데 역시 갈애나 사견에의 주착을 뜻한다. 갈애나 사견이 조건지어진 것과 관련하여 발생할 때 그것들을 나 혹은 내것이라는 잘못된 관념을 일으킨다. 그래서 이 갈애와 사견은 접근, 집착, 주착으로 규정된다. 그런데 가이거는 이상의 일련의 단어는 경험적인 사물과의 관계를 나타낸다고 보아 사유와 대상과의 점진적인 결합과정의 절정들을 표현한 것으로 보았다. 이러한 과정들을 통해서 정신은 대상에 계박(繫縛)되어버린다.

Suttantapiṭake
Saṃyuttanikāyo
Tatiyo bhāgo
Khandhakavaggo
1. Khandhasaṃyuttaṃ
2. Majjhimapaṇṇāsako
4. Theravaggo

Namo tassa bhagavato arahato sammā sambudhassa

1. 2. 4. 8.

Channa suttaṃ

90. Ekaṃ samayaṃ sambahulā therā bhikkhū bārāṇasiyaṃ viharanti. Isipatane migadāye. Atha kho āyasmā channo sāyanhasamayaṃ paṭisallānā vuṭṭhito avāpūraṇaṃ4- ādāya vihārena vihāraṃ

--------------------

1. Hoti yo - sīmu. 2. Pucchimha - machasaṃ. 3. Paññāpetuṃ machasaṃ. 4. Apāpūraṇaṃ - sīmu, syā.

[BJT Page 228] [\x 228/]

Upasaṃkamitvā there bhikkhū etadavoca: "ovadantu maṃ āyasmanto. 1- Therā anusāsantu maṃ āyasmanto therā. Karontu me āyasmanto therā dhammiṃ kathaṃ yathāhaṃ dhammaṃ passeyyanti.

Evaṃ vutte āyasmantaṃ channaṃ therā bhikkhū etadavocuṃ: "rūpaṃ kho āvuso channa, aniccaṃ, vedanā aniccā, saññā aniccā, saṃkhārā aniccā, viññāṇaṃ aniccaṃ, rūpaṃ anantā, vedanā anattā, saññā anattā, saṃkhārā anattā, viññāṇaṃ anattā, sabbe saṃkhārā aniccā, sabbe dhammā anattā"ti.

Atha kho āyasmato channassa etadahosi: mayhampi kho etaṃ evaṃ hoti: "rūpaṃ aniccaṃ, vedanā aniccā, saññā aniccā, saṃkhārā aniccā, viññāṇaṃ aniccaṃ, rūpaṃ anantā, [PTS Page 133] [\q 133/] vedanā anattā, saññā anattā, saṃkhārā anattā, viññāṇaṃ anattā, sabbe saṃkhārā aniccā, sabbe dhammā anattāti. Atha ca pana me sabbasaṃkhāra samathe sabbūpadhipaṭinissagge taṇhakkhaye virāge nirodhe nibbāne cittaṃ na pakkhandati nappasīdati na santiṭṭhati nādhimuccati2paritassanā upādānaṃ uppajjati, paccudāvattati mānasaṃ, atha kho carahi me attāti, na kho panevaṃ3- dhammaṃ passato hoti "ko nu kho me tathā dhammaṃ deseyya yathāhaṃ dhammaṃ passeyya"nti.

Atha kho āyasmato channassa etadahosi. "Ayaṃ kho āyamā ānando kosambiyaṃ viharati ghositārāme. Satthu ceva saṃvaṇṇito sambhāvito ca viññūṇaṃ sabrahmacārīnaṃ pahoti ca me āyasmā ānando tathā dhammaṃ desetaṃ yathāhaṃ dhammaṃ passeyyaṃ, atthi ca me āyasmante ānande tāvatikā vissaṭṭhi,ya nnūnāhaṃ yenāyasmā ānando tenupasaṅkameyya"nti.

Atha kho āyasmā channo senāsanaṃ saṃsāmetvā pattacīvaramādāya yena kosambi ghositārāmo, yenāyasmā ānando tenupasaṃkami. Upasaṃkamitvā āyasmatā ānandena saddhiṃ sammodi. Sammodanīyaṃ kathaṃ sārāṇīyaṃ visāretvā ekamantaṃ nisīdi. Ekamanataṃ nisinno kho āyasmā channo āyasmantaṃ ānandaṃ etadavoca: "ekamidāhaṃ āvuso ānanda, samayaṃ bārāṇasiyaṃ viharāmi isipatane migadāye, atha kho ahaṃ āvuso sāyanhasamayaṃ paṭisallānā vuṭṭhito avāpūraṇaṃ ādāya vihārena vihāraṃ upasaṃkamiṃ. Upasaṃkamitvā there bhikkhū etadavocuṃ: "ovadantu maṃ āyasmanto therā anusāsantu maṃ āyasmanto therā, karontu me āyasmanto therā dhammiṃ kathaṃ yathāhaṃ dhammaṃ passeyya"nti.

Evaṃ vutte maṃ āvuso, therā bhikkhū etadavocuṃ: rūpaṃ kho āvuso channa, aniccaṃ, vedanā aniccā, saññā aniccā, saṃkhārā aniccā, viññāṇaṃ aniccaṃ, rūpaṃ anantā, vedanā anattā, saññā anattā, saṃkhārā anattā, viññāṇaṃ anattā, sabbe saṃkhārā aniccā, sabbe dhammā anattāti.

--------------------

1. Āyasmantā - sīmu, sī 2. 2. Na vimuccati - sīmu. 3. Nakhopanetaṃ - sīmu.

[BJT Page 230] [\x 230/]

Tassa mayhaṃ āvuso, etadahosi: "mayhampi kho [PTS Page 134] [\q 134/] etaṃ evaṃ hoti: rūpaṃ aniccaṃ, vedanā aniccā, saññā aniccā, saṃkhārā aniccā, viññāṇaṃ aniccaṃ, rūpaṃ anantā, vedanā anattā, saññā anattā, saṃkhārā anattā, viññāṇaṃ anattā, sabbe saṃkhārā aniccā, sabbe dhammā anattāti.

Atha ca pana me sabbasaṃkhārasamathe sabbūpadhipaṭinissagge taṇhakkhaye virāge nirodhe nibbāne cittaṃ na pakkhandati nappasīdati na santiṭṭhati nādhimuccati. Paritassanā upādānaṃ uppajjati. Paccudāvattati mānasaṃ. Atha kho carahi me attāti. Na kho panetaṃ dhammaṃ passato hoti, ko nu kho me tathā dhammaṃ deyeyya yathāhaṃ dhammaṃ passeyya'nti.

Tassa mayhaṃ āvuso, etadahosi: "ayaṃ kho āyasmā ānando kosambiyaṃ viharati ghositārāme satthu ceva saṃvaṇṇito sambhāvito ca viññūnaṃ sabrahmacārinaṃ. Pahoti ca me āyasmā ānando tathā dhammaṃ desetuṃ, yathāhaṃ dhammaṃ passeyyaṃ. Atthi ca me āyasmante ānande tāvatikā vissaṭṭhi, yannūnāhaṃ yenāyasmā ānando tenupasaṃkameyya'nti. Ovadatu maṃ āyasmā ānando, anusāsatu maṃ āyasmā ānando, karotu me āyasmā ānando dhammiṃ kathaṃ, yathāhaṃ dhammaṃ passeyyanti.

Ettakenapi mayaṃ āyasmato channassa attamanā abhiraddhā, taṃ1āyasmā channo āvīakāsi. Khilaṃ pabhindi, 2- odahāvuso channa sotaṃ. Bhabbo'si dhammaṃ viññātunti. Atha kho āyasmato channassa tāvatakeneva3- uḷāraṃ pītipāmojjaṃ uppajji bhabbo kirasmi dhammaṃ viññātu"nti.

Sammukhā me taṃ āvuso channa, bhagavato sutaṃ sammukhā ca paṭiggahitaṃ kaccānagottaṃ bhikkhuṃ ovadantassa "dvayanissito khoyaṃ kaccāna, loko [PTS Page 135] [\q 135/] yebhuyyena atthitañce va natthitañca, lokasamudayaṃ kho kaccāna yathābhūtaṃ sammappaññāya passato yā loke natthitā sā na hoti. Lokanirodhaṃ kho kaccāna yathābhūtaṃ sammappaññāya passato yā loke atthitā sā na hoti. Upayūpādānābhinivesavinibandho kho'yaṃ kaccāna, loko yebhuyyena, tañcāyaṃ upayūpādānaṃ cetaso adhiṭṭhānābhinivesānusayaṃ na upeti. Na upādiyati na adhiṭṭhāti 'attā me'ti dukkhameva uppajjamānaṃ uppajjati. Dukkhaṃ nirujjhamānaṃ nirujjhatī"ti. Na kaṅkhati na vicikicchati. Aparapaccayā ñāṇamevassa ettha hoti. Ettavatā kho kaccāna sammādiṭṭhi hoti.

-------------------------

1. Attamanā apināma taṃ - machasaṃ, 2. Khīlaṃ chandi - machasaṃ. 3. Tāvadeva - sīmu.

[BJT Page 232] [\x 232/]

"Sabbamatthi"ti kho kaccāna, ayameko anto, "sabbaṃ natthi"ti kho ayaṃ dutiyo anto, ete te kaccāna, ubho ante anupagamma majjhena tathāgato dhammaṃ deseti: "avijjāpaccayā saṃkhārā, saṃkhārāpaccayā viññāṇaṃ, viññāṇapaccayā nāmarūpaṃ nāmarūpa paccayā saḷāyatanaṃ. Saḷāyatanapaccayā phasso, phassapaccayā vedanā, vedanāpaccayā taṇhā, taṇhāpaccayā upādānaṃ, upadānapaccayā bhavo, bhavapaccayā jāti, jātipaccayā jarāmaraṇaṃ sokaparidevadukkhadomanassupāyāsā sambhavanti, evametassa kevalassa dukkhakkhandhassa samudayo hoti.

Avijjāyatveva asesavirāganirodhā saṃkhāranirodho saṃkhāranirodhā viññāṇanirodho, viññāṇanirodhā nāmarūpanirodho, nāmarūpanirodhā saḷāyatananirodho, saḷāyatanirodhā phassanirodho phassanirodhā vedanānirodho, vedanānirodhā taṇhānirodho taṇhānirodhā upādānanirodho upādānanirodhā bhavanirodho, bhavanirodhā jātinirodho, jātinirodhā jarāmaraṇaṃ sokaparidevadukkhadomanassupāyāsā nirujjhanti. Evametassa kevalassa dukkhakkhandhassa nirodho hotī"ti.

Evametaṃ 1- āvuso ānanda hohi, yesaṃ āyasmantānaṃ tādisā sabrahmacārayo anukampakā attakāmā ovādakā anusāsakā. Idañca pana me āyasmato ānandassa dhammadesanaṃ sutvā dhammo abhisametoti.

Sutta Pitaka
Saṃyutta Nikāya
Division III - Khandhaka
Book 21 - Khandha Saṃyutta
Section 2 - The Middle Fifty
Chapter 4 - Thera (Cattutho) Vagga

Namo tassa bhagavato arahato sammā sambuddhassa

21. 2. 4. 8.

(90) Channo - Venerable Channa

1. At one time many elder monks lived in the deer park in Isipatana in Benares.

2. Then venerable Channa getting up from his seclusion in the evening went from dwelling to dwelling with a bunch of keys saying, `Venerable sirs, elders, advice me! Incite me! Teach me so that I may realize the Teaching!'

3. Then the elder monks said to venerable Channa: “Friend Channa, matter is impermanent. Feelings, perceptions, intentions, and consciousness are impermanent. Friend, matter is unpleasant. Feelings, perceptions, intentions, and consciousness are unpleasant. Friend, matter lacks self. Feelings, perceptions, intentions, and consciousness lack self. All intentions are impermanent and all ideas are not self.

4. Then it occurred to venerable Channa. `To me too it occurs thus: 'Matter is impermanent. Feelings, perceptions, intentions, and consciousness are impermanent. Matter is unpleasant. Feelings, perceptions, intentions, and consciousness are unpleasant. Matter lacks self. Feelings, perceptions, intentions, and consciousness lack self. All intentions are impermanent and all ideas are not self.

5. Yet, when all intentions are appeased, all endearments are forsaken, craving is destroyed and when losing interest, ceasing to extinguish, the mind does not spring forward, does not delight, settle there and is not released. Then the mind turns back to seize, to worry. So damn this self! Who could teach me, so that I would realize this Teaching?'

6. Then it occurred to venerable Channa: 'There is venerable Ānanda living in Ghosita's monastery in Kosambi. He is praised even by the Teacher as well-developed and wise, among the co-associates in the holy life. It is possible for venerable Ānanda to advice me, so that I could realize the Teaching. I have confidence in venerable Ānanda, what if I approach venerable Ānanda.'

7. Then venerable Channa arranged his dwelling and taking bowl and robes left for Kosambi and approached venerable Ānanda, exchanged friendly greetings and sat on a side.

8. Sitting on a side venerable Channa said to venerable Ānanda: “Friend Ānanda, at one time, I lived in the deer park in Isipatana in Benares. Then I got up from my seclusion in the evening went from dwelling to dwelling with a bunch of keys saying, `Venerable sirs, elders, advise me! Incite me! Teach me so that I may realize the Teaching.

9. Friend, when I said this, the elder monks said to me, friend Channa, matter is impermanent. Feelings, perceptions, intentions, and consciousness are impermanent. Friend, matter is unpleasant. Feelings, perceptions, intentions, and consciousness are unpleasant. Friend, matter lacks self. Feelings, perceptions, intentions, and consciousness lack self. All intentions are impermanent and all ideas lack self.

10. Then friend, it occurred to me. Matter is impermanent. Feelings, perceptions, intentions, and consciousness are impermanent. Matter is unpleasant. Feelings, perceptions, intentions, and consciousness are unpleasant. Matter lacks self. Feelings, perceptions, intentions, and consciousness lack self. All intentions are impermanent and all ideas are not self.

11. Yet, when I appease all intentions, forsake all endearments, destroy craving, lose interest, cease and yoke the mind to extinguish it does not spring forward, does not delight, settle there and is not released. The mind turns back to seize, to worry. So I thought damn this self. Who could teach me, so that I would realize this Teaching?

12. Then friend, it occurred to me, there is venerable Ānanda living in Ghosita's monastery in Kosambi. He is praised even by the Teacher, as well-developed and wise, among the co-associates in the holy life. It is possible for venerable Ānanda to advice me, so that I could realize the Teaching. I have confidence in venerable Ānanda, and have approached venerable Ānanda.

13. Friend Ānanda, advise me! Incite me! Teach me so that I could realize the Teaching.

14. I am very pleased with venerable Channa's openness and readiness to learn. Lend ears it is possible to make known the Teaching.

15. Even while hearing these words, venerable Channa's heart was filled with emotions of joy, thinking it is possible for me to realize the Teaching.

16. Friend, Channa, I heard these words from the Blessed One himself, extolled to train the bhikkhu of the Kaccana clan, it was accepted by him. `Kaccana the world mostly is established on these two, either it is present or not present. Kaccana, the world is not present, is not to him who sees the arising of the world as it really is with right wisdom. Kaccana, the world is present, is not to him who sees the cessation of the world as it really is with right wisdom. Kaccana, the world mostly seems to be approaching, seizing and being bound in a bond. That same approached seized mind's intended latent tendency to settle does not answer the question and grasp the intention as it is mine. It is only unpleasantness that rises and unpleasantness that ceases. He has no doubts about it and it is not knowledge from another, it occurs to him on its own. Kaccana, it becomes right view to him.

17. Kaccana, everything is present, is one extreme, everything is not present, is the second extreme. Not reaching to either of these extremes, the Thus Gone One teaches in the middle. On account of ignorance are intentions, on account of intentions, consciousness, thus arises the complete mass of unpleasantness. With the cessation of ignorance, nothing remaining intentions cease, thus is the cessation of the complete mass of unpleasantness.

18. Friend, Ānanda, so it happens thus. Venerable Ānanda, you, advise and incite co-associates out of compassion for their welfare. I hearing this discourse of venerable Ānanda, realized the Teaching.